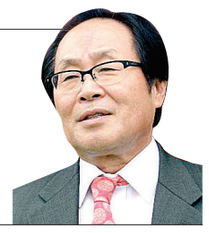
현불 논단

대선, 불자가 바라는 후보는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1월 승려대회서 종교편향 성토
이번 대선 韓불교 비전과 관계
불자, 어떤 후보 선택해야 하나

佛法 핵심, 중도 지혜를 가지고
자비 공동체 구현 의지 지녀야
불교문화 이해 높은 후보 필요

지혜 · 자비 가진 후보 누구일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보아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면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기회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불교와 불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불교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의 중심부로부터 핍박과 불이익을 받아 왔다. 8 · 15 광복 이후, 특히 한국전쟁 중 구호 물품과 함께 이 땅에 대거 상륙한 기독교 세력은 크리스마스의 캐럴 속에서 정치적 은총을 계속 받아 왔다. 지난 1월 21일 조계종 전국 승려대회는 이러한 누적된 종교편향에 대한 항의였다.

긴 종교의 역사를 보면 종교와 정치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정교분리'는 내숭일 뿐이다. 불교는 단순한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불교의 하화중생과 자비정신을 사바세계에서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과제가 많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불자에게는 민주주의의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한국불교의 비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불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불자가 선택해야 할 후보의 자질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본다.

첫째, 중도적 지혜를 가진 후보다. 중도는 붓다 다르마의 핵심이다. 중도는 중간도 아니고 중용도 아니다. 중도에 대한 가르침은 양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불교의 개방성은 이러한 중도의 지혜에서 나오고 불교의 평화 사상도 여기서 나온다. 한국 정치의 현실은 중도의 틀에서 보면 참으로 난감하다. 배타적 진영 논리와 계산적 좌우 이념 논쟁이 난무한다. 그 사례를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전투구의 정치 마당에서 그래도 얼마간의 중도적 지혜를 갖춘 후보는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어본다. 중도의 지혜는 한국 정치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둘째, 자비 공동체 구현의 의지를 가진 후보이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덕목이 아니다. 자비는 모든 윤리적 덕목의 꼭짓점이고 정치사회적 지향가치의 총화이다. 자비의 덕목에는 연민, 공감, 우정, 생명존중 등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부터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 사회윤리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다. 하화중생은 바로 자비공동체의 구현이며, 행복하고 바른 사회 만들기다. 이러한 자비 공동체 구현은 세상사에 대한 폭넓은 정견(正見)과 실천력이 요구된다.

셋째, 불교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진 후보이다. 한국의 '찬란한' 문화는 불교의 문화 속에서 꽃핀 것이다. 불교문화와 불교문화유산이 없는 한국문화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하나의 신앙 집단으로 간주하고 불교문화유산을 신앙의 재물로 폄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에서 불자가 선택할 후보자의 자질을 살펴보았다. 첫째와 둘째의 자질은 큰 틀에서 제시한 것이고 셋째 자질은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후보를 가려서 선택하기가 매우 힘들다. 모든 후보는 표를 위해 모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자질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붓다 다르마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믿음에 관한 발자취와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붓다 다르마의 지혜와 자비 실천의 비전을 가진 후보는 누구인가? 10%의 자질이라도 좋으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찾아보아야겠다.

또한 불교는 앞으로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터를 일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社 說

백만원력결집, 마지막까지 집중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신년기자회견문이 2월 10일 발표됐다. 본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계획을 발표하려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문서 배포로 대체했다.

이번 회견문에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제36대 집행부의 지난 4년간의 궤적과 성과들이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제36대 집행부의 중점사업이었던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성과였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2019년 시작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인 성과가 부처님 성도처인 인도 부다가야에 분황사를 건립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한데 이어, 오는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6월에는 계룡대에 국군불교 전법 전초기지 호국 홍제사가 완공될 예정이며, 행정수도 세종시에는 한국불교체험관과 광제사 불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의 숙원사업이었던 불교요양원 건립불사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난항을 겪었던 10.27법난 명예회복기념관 불사도 다시 안정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36대 집행부는 전통사찰 규제 개선을 비롯해 〈불교성전〉 발간, 승려복지 체계 확립 등 굵직한 종단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다.

원행 스님도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퇴임까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 · 문화 트렌드에 맞춰 내놓은 '불교문화비전 2030'은 기대가 크다.

시작과 과정이 좋았던 만큼 마무리도 좋아야 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부족했던 한국불교의 인프라 확장에 초석을 세웠다. 그 초석의 완성을 위해 제36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

나눔의집 스님들의 대승적 결단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이 최근 법원의 '경기도 해임명령 취소 소송' 기각결정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법적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나눔의집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대승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스님들의 항소 포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애초 해당 소송은 이사 스님들에게 제기됐던 횡령 · 배임 등 의혹이 경 ·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음에도, 경기도가 해임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입증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기됐다. 따라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사 스님들로서는 아쉽고 억울한 측면이 적지 않다. 때문에 법원 결정 이후 항소를 통해 끝까지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항소포기를 택했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바라는 것은 명확했다. 바로 나눔의집 정상화다. 스님들은 현재 임시이사회 체제의 임시이사들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 파견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음에도 되레 혼란이 가중되고 정상화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며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되겠다는 참담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빨리 정식이사회 체제로 전환돼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나눔의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들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을 토대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오름서 전하는 새해 인사

어제, 누군가에게로 떠나간 매정한 저녁 해가, 오늘, 나에게로 따뜻한 붉은 여의주가 되어 막막하고 힘든 밤을 지나 희망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로 건넨 인사는 평안의 미소가 됩니다. 이 아침, 조금은 긴장된 내게로 위안의 손을 내밀어 희망의 새해 인사를 해옵니다.

이른 새벽, 시린 코끝으로 바람에 한들거리며 다가선 수선화 향을 맡으며 캄캄한 길을 걸어 가까운 오름을 오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마음에 맑고 밝은 기운이 깃들길 바라며 걸어갑니다. 이 어둠을 건너 아침이 오면 자비롭고 평온한 마음이 깨어나길 바라며 걸어갑니다.

삶은 마음의 투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넉넉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예민한 사람 등으로 비칩니다. 하지만 오름에서 바라본 마을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평온하게 반짝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내거나 거두는 다른 모습을 띤 마음의 빛이 있을 뿐입니다. 매 순간 맑지만도 흐리지만도 않습니다.

살아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에 따라 마음에 이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뒷모습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뒤를 따라 기러기처럼 줄지어 걸어가는 수행자 벗들의 뒷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오름에서 바라본 마을의 불빛들은 따스하게 비춰줄 태양을 기다리며 묵묵히 어둠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해 첫 햇살을 맞고 있는 오름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내게 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밝고 따스하게 당신에게 다가가렵니다. 새해 아침 햇살을 받는 당신에게서 차디찬 겨울밤을 지나온 맑고 강건한 수선화 향이 납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쌍윳따니까야〉 게송품에서, 세존께서는 싸왓티의 제따나와 아나타뻰디까 사원에서 꼬쌀라의 빠쎄나디왕과 말리까왕비에게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다녀도/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네./ 이처럼 다른 사람도 저마다 자신이 사랑스럽다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네.

향기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줍니다. 저 새해 아침 햇살이 밝은 긍정의 희망을 품게 하듯이, 임인년에는 조금 더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름에서 바라본 당신이 머무는 마을은 어둠이 깊으면 아침이 가깝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차별 없이 비추고 있습니다. 설사 흐린 날이라 할지라도 저 구름 위에는 희망의 해가 떠 있습니다. 어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호호일일시호년(好虎日日是好年)' 하소서. 호호 웃는 좋은 호랑이 기운이 날마다 이어져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으소서.

〈제주 선래왓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